

성삼 한인 성당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1년 9월 19일



복음 나누기

연중 제 25주일 (9월 19일)
수난과 부활을 두 번째로 예고하시다
(마르 9,30-37)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1번 "형제에게 베푼 것"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 주님, 이 시간 당신의 현존 속에 머물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마르코 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30 갈릴래아를 가로질러 갔는데, 예수님께서서는 누구에게도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31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이다. 32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33 그들은 카파르나움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서는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길에서 무슨 일로 논쟁하였느냐?" 하고 물으셨다. 34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길에서 논쟁하였기 때문이다. 35 예수님께서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열두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36 그러고 나서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에 세우신 다음, 그를 껴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37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복음 나누기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길에서 논쟁하였기 때문이다." (마르 9,34)

주위에서 이런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마르 9,35)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나누어 봅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최고의 명문 대학인 예일 대학과 하버드 대학 교수를 역임했으며 「제네시 일기(The Genesee Diary)」 등 20여 권의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나웬(H. Nouwen; 1932-1996) 신부. 그는 1986년 돌연 교수직을 사임하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라르슈 공동체 (L' Arche Community)'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정신지체아들의 용변을 치우고 목욕을 시켜주며 살았습니다. 말년에 이르러 그가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오직 꼭대기를 향해 오르막길만 걸어왔다. 어릴 때부터 늘 일등으로 달려 하버드 대학 교수직에까지 올라왔다. 그러나 지금 정신지체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은, 인간이란 내리막길을 갈 때 더욱 성숙해진다는 사실이다. 나는 오르막길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평화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송현, 가톨릭 출판사, 2013, 192-193p)

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논쟁하는 제자들에게 첫째가 되려는 이는 꼴찌가 되어야 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어린이를 세우시고 껴안으시며 어린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당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임을 말씀하십니다. 당시 어린이는 약하고 소외된 존재를 상징했습니다. 즉,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당신처럼 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꼴찌가 되는 사람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며 하느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고,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사랑하시는 꼴찌의 삶을 사셨으며 마침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모범을 따라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꼴찌의 삶, 섬김의 삶을 살도록 노력합시다.



복음 나누기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1번 "형제에게 베푼 것"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시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리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